

광복기 아동지와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한 정 호**

차 례

- | | |
|--------------------|-------------------------|
| I. 들머리 | Ⅲ. 경남·부산지역의 아동문학가와 그 활동 |
| Ⅱ. 광복기 아동지의 양상과 특성 | 1. 기성문인의 매체 활동과 지역문단 |
| 1. 현실주의 동심과 문학 실천 | 2. 신예문인의 등장과 독자 투고문단 |
| 2. 천사주의 동심과 아동 계몽 | Ⅳ. 마무리 |

I. 들머리

아동문학은 우리 근·현대문학의 주요 영역이다. 이와 같은 인식과 더불어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연구 성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그 연구의 대상이 특정 아동지나 널리 알려진 아동문학가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점이다. 그런 탓에 아동문학사 전반에 관한 이해의 길은 여전히 가로막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의 아동문학은 지역적 연대가 매우 긴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타 문학 갈래와 마찬가지로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72-AS1511).

** 경남대학교 연구교수

서울 중심의 문단활동에 일방적으로 눈길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로 말미암아 지역 차원에서의 아동문학은 더욱 변두리로 밀려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지역문인들의 활동은 자꾸만 그들에 가려졌다.

따라서 우리의 아동문학 연구는 계속해서 찾아들고 따져야 할 자리가 뜻밖에 많다. 이는 오랜 폄하와 홀대 속에서 연구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열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까닭이다. 특히 지역 중심의 아동문학 연구는 더더욱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형편이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의 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의 온전한 아동문학사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자료 발굴과 함께 시대별 특성, 개별 아동문학가에 대한 접근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광복기 아동문학 연구도 마찬가지다. 이 일에는 각별히 광복기 아동문단에서 중요한 무게를 갖는 기본 문헌, 곧 아동지에 대한 사료 발굴이 우선 일거리로 남아 있다.

광복기는 우리 아동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앞선 시기의 아동문학운동에서 아동문학운동으로 이행되는 문학사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¹⁾ 광복과 더불어 아동지의 발간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어졌고, 나라잃은시기 자신의 문학살이를 갈무리하듯 개인의 작품집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광복기 아동문학 연구는 다른 갈래와 견주어 턱없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연구의 기초가 되는 1차 텍스트조차 갈무리되어 있지 않다. 그런 까닭에 광복기 아동문학에 대한 전반적 논의는 물론이고, 개별 작가나 작품에 대한 접근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²⁾

그런 점에서 글쓴이는 광복기 아동문학의 주도 매체였던 아동지의 사료 발굴과 실증적 자료 정리에 힘을 쏟았다. 이는 광복기 아동문학의 빈자리를 채우

1) 이재철은 우리의 아동문학사 가운데 광복기를 ‘아동문학운동시대-광복미혼기’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광복 전의 아동문학은 우리말과 우리글을 통한 민족주의적 아동문학운동이요, 아동감각해방운동이었다면, 광복 후의 아동문학은 본격문학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아동문학운동이요, 아동해방운동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철, 『아동문학의 이론』(형설출판사, 1983), 92쪽 참조.

2) 나라잃은시기의 사정과는 달리, 광복기 아동문학에 대한 연구는 몇몇 개론서에서 시대적 특성 또는 잡지 목록을 소개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광복기 아동지에 대한 글로는 단지 『소학생』~연구가 눈에 띄 정도이다. -김효진, 『『소학생』지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단국대학교 대학원, 1992).

고, 그 구체적 면모를 학계에 알려 우리 아동문학사의 바탕을 다지는 일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글쓴이는 우리 근대문학사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던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마땅한 자리매김을 시도하고자 한다. 비록 광복기에 한정된 고찰이지만, 각종 아동지에 실린 경남·부산지역 문인들의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지역문학에 대한 폭과 깊이를 더하는 일이 될 것이다.³⁾

II. 광복기 아동지의 양상과 특성

우리 아동문학의 작은 근대 초기부터 돌아나고 있었다. 최남선이 펴낸 『소년』과 『아이들 보이』를 시작으로 여러 매체들이 창간과 폐간을 거듭했다. 김여제가 펴낸 『붉은 저고리』, 최남선이 발행하고 이광수가 편집에 가담했던 『새별』이 그것이다. 이때부터 ‘어린이’·‘동화’, ‘아동문학’ 같은 용어들이 처음으로 쓰이게 되었고, 어린이를 독자 대상으로 삼아 그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들 잡지는 1920년대에 나온 아동지들과 견주어 볼 때, 본격적인 아동 매체라고 말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1920년대 이후에는 아예 어린이를 독자 대상으로 삼은 아동지들이 연이어 나왔다.⁴⁾ 하지만 그 무렵 매체들은 왜로 군국주의의 검열과 열악한 출판 환경

3) 이 글에서 글쓴이는 광복기에 나온 수십 종의 아동지들을 찾아내고 쟁겼다. 이들 자료 가운데 연구 대상으로는 삼은 것을 시대별로 밝혀두면 다음과 같다. 『새동무』(1945-47), 『별나라』(1945-46), 『어린이신문』(1945-47), 『아동문학』(1945-47), 『새싹』(1946-50), 『파랑새』(1946), 『소학생』(1946-50), 『소년운동』(1946-47), 『보육』(1946), 『아동』(1946-48), 『아동교육』(1947-49), 『어린이세계』(1947), 『어린이』(1948-49), 『소년』(1948-50), 『아동문화』(1948), 『어린이나라』(1949-50), 『글동무』(1948), 『진달래』(1949), 『아동구락부』(1950) 등이 그것이다.

4) 그 무렵에 발간·폐간되었던 아동지들을 열거해 보면, 『어린이』, 『신소년』, 『새별』, 『반도소년』, 『신진소년』, 『소년시대』, 『새벗』, 『소년세계』, 『아희생활』, 『소년계』, 『영데이』, 『별나라』, 『소년조선』, 『학생』, 『조선아동신보』, 『아동세계』, 『신아동』, 『목마』, 『소년중앙』, 『아동문예』, 『동화』, 『카톨릭소년』, 『소년』, 『빛』, 『유년』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어린이벗』, 『소년신보』, 『종달새』, 『고향집』, 『새동무』 등이 있다. 물론 여기에 밝힌 매체들을 모두 아동지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더러는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단명하고 말았다. 특히 『어린이』·『신소년』·『별나라』·『아희생활』은 오래도록 명맥을 이어가면서 우리 아동문학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우리 아동문학사에서는 1920년 이후를 일컬어 ‘아동 잡지의 황금시대’⁵⁾라고도 한다.

1945년 을유광복을 맞이하자 우리 문단은 유례없는 정치적 자유를 맛보게 된다. 나라 현실에 대한 이념적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좌·우 대립은 민족문학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아동문단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조선문학건설본부 내 아동문학위원회(1945. 9. 1)와 조선아동문화협회(1945. 9. 21)가 결성되었다. 그 뒤 조선아동문화연구회가 조직(1946. 3. 9)되었다. 그러나 대개의 아동문학가들은 그러한 와중에 휩쓸리기를 피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광복기 아동문단의 양상은 무지향적인 혼미현상을 다분히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시대적 혼미상에 여러 매체나 작가들이 편승되었음은 두말할 여지도 없을 것이다.

광복기 또한 아동 매체의 그 양적 풍성함은 어느 시대 못지 않게 두드러졌다. 그것은 물론 나라를 다시 되찾은 기쁨에서 우후죽순처럼 설립된 출판사의 급증이 아동지에까지 파급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읽을거리에 굶주렸던 어린이들에게 동화·동시·만화·교양물 등을 읽힘으로써 혼란한 세태 속에서 정서 교육에 큰 몫을 맡았다. 불과 5년 동안의 광복기에는 30여 가지를 웃도는 아동지들이 쏟아지듯 나왔다. 광복기에 나온 아동지들은 나라 현실에 입각하여 아동문학운동을 주창했다.

그런 점에서 광복기 아동문단은 이들 매체 발간과 아동문학가들의 작품 활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광복기 아동문단은 민족주의 동심에 기초한 두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좌파 성향의 현실주의 동심과 우파 성향의 천사주의 동심이 그것이다.⁶⁾ 당시 발간된 아동지의 특성을 매체 성향별로

5)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일지사, 1978), 100쪽.

6) 앞선 연구자들은 광복기 아동문단의 두 양상을 계급주의와 민족주의 동심으로 나누고 있다. 하지만 글쓴이는 이 모두가 민족주의 동심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까닭에, 현실주의 동심과 천사주의 동심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현실주의 동심은 어린이가 처한 구체 현실이나 생활모습을 주로 노래했고, 천사주의 동심은 어린이의 꿈과 순수한 감정세계를 노래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광복기 아동문단의 면모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1. 현실주의 동심과 문학 실천

무엇보다도 좌파 성향의 문인들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에 의해 조직된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연맹은 조선문학가동맹으로 뭉쳐 하위분과인 아동문학위원회⁷⁾로 결성되었다. 이는 현실주의 아동문학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조직력을 과시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반면 우파 성향의 문단에서는 이에 맞설 만한 조직적인 단체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여러 방면에서 아동문학 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1945년 윤석중·조풍연·심은정 등이 결성한 조선아동문화협회는 다분히 영리성을 띤 단체였으나 우파 노선을 견지해 나갔다. 그런 점에서 아동문단에 나타난 좌·우파의 대립상은 성인문단의 그것처럼 조직적이고 정돈된 것이 아니었다.

먼저 현실주의 동심을 주로 드러낸 아동지로는 『새동무』, 『별나라』, 『아동문학』, 『아동문화』, 『어린이세계』, 『어린이나라』, 『진달래』를 들 수 있다. 광복 되던 해 12월 맨 먼저 나온 『새동무』는 『별나라』와 함께 현실주의 양상을 지닌 광복기의 대표 아동지였다. 창간호의 편집 겸 발행인은 임가순, 인쇄인은 이하갑, 발행과 인쇄는 신문화사에서 이루어졌다. 본디 월간으로 낼 계획이었으나, 창간호와 제2호(1946. 4)의 발간 시기가 4개월이나 간격을 두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당대의 출판 사정이 여러모로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⁸⁾

7) 1945년 12월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부서를 결정했다. 소설부(위원장 안희남), 시부(위원장 김기림), 평론부(위원장 김태준), 농민문학(위원장 권환), 아동문학(위원장 정지용), 고전문학(위원장 이병기), 외국문학(위원장 김광섭)이 그것이다. 특히 아동문학부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정지용, 서기장 윤복진, 위원으로 현덕·이동규·이주홍·양미림·임원호·이태준·박아지·홍구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8) ‘미군정당국은 요지 사정이 더욱 악화되자 불요불급한 도서의 출판을 억제하기 위하여 용지배급권을 행사하여 출판계를 정비하는 한편, 일부 출판사에 대해서는 용지 수입을 앞선하여 건전한 출판업의 육성을 지원하였다. / 1946년 말경에 가서는 좌익출판물을 발행하는 출판사들이 모여 조선좌익서적출판협의회를 결성하였다. / 이 협의회의 구성 목적은 용지란이 극심해지자 무질서하게 출판되는 좌익서적에 대하여 납발을 억제함으로써, 좌익계열이 보유한 용지를 절약하고 상호협조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30

그 뒤 『새동무』는 1946년 10월 속간호인 제3호를 다시 펴냈다.⁹⁾ 제호는 그대로 따랐고, 마산 출신의 김원룡이 편집 겸 발행인을 맡았다. 편집자문으로 이원수, 편집부장으로 황용남이 그 일을 거들었다. 물론 발행소(새동무사)와 인쇄소(보성사)도 바뀌었다. 1947년 9월에 제10호로 폐간되었다. 『새동무』의 편집 체제는 교양·교훈물, 동요·동화·소년소설, 연재만화, 어린이 작품·선생님 페이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창간 당시 주간을 맡았던 임가순은 발간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말로 된 잡지를 갖지 못했다. 아니 많이 있던 것이 일본 총독정치의 모진 탄압으로 말미암아 모조리 쫓겨내여지고 말았다. 글에 대한 우리들의 요구가 아름다운 움짝이라면 총독정치의 야만적인 간섭은 그 움짝을 깔고앉아 무거운 바윗돌이었다. 그러나 8월 15일 이후 그 미운놈의 바윗돌은 보기좋게 밀려가고 말았다. 움짝은 다시 햇살을 보게 되었다. 우리들은 자유롭게 자라날 것이다. 오늘부터 이 『새동무』는 착하고 귀여운 조선의 많은 어린이동무들과 어깨동무해서 바르고 씩씩하게 걸어나갈 가장 사이좋은 동무가 되어질 것이다.¹⁰⁾

임가순이 앞서 발행한 『새동무』에는 박세영, 윤석중, 윤복진, 박석정, 이주홍, 임가순, 한효, 송완순, 임병철, 홍효민, 안동수, 최병화, 염근수, 박아지, 홍구, 한설야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창간 당시 필진들은 대개 조선문학건설본부 또는 조선문학가동맹의 맹원들이었다. 뒤를 이어 김원룡이 발행한 『새동무』에는 앞서 참여한 필진들이 대폭 바뀌고 김원룡, 이태준, 김철수, 임원호, 이원수, 김용호, 윤곤강, 양미림, 최병화, 안희남, 이극노, 남대우, 이구조, 이종성, 이주홍, 채규철, 정태병 같은 좌파 계열의 문인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렇다고 해

년사』(대한출판문화협회, 1977), 355쪽.

9) 『새동무』~제4호에서는 ‘암초에 자칫 하였던면 맥을 잃고 쓰러질 것들’ 여러 사람들의 간곡한 권고로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속간호는 각처에서 대호평입니다. 학교에서도 단체주문을 하여 과외독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호부터는 양미림 최병화 두 선생님의 연재소설로 더욱히 인기가 높아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이 갈수록 새동무 내용이 충실하여짐은 새동무를 사랑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덕택으로 감사함을 마지 않습니다’고 밝혔다. -『새동무』~제4호, 『만들고나서』 참조.

10) 『새동무』~창간호, 『인사말씀』 참조.

서 『새동무』는 좌파의 극한적이고 선동적인 논조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아동의 구체 현실에 기대어 현실주의적 동심을 내세우고 부르짖는 아동지였다.

나라잃은시기에 나온 『별나라』는 『신소년』과 더불어 계급주의 아동문학의 주도 매체였다.¹¹⁾ 그 맥을 이어 앞선 시기부터 주요 필진으로 활동했던 안준식이 편집 겸 발행을 맡아, 광복과 함께 속간호(1945. 12)를 펴냈다. 하지만 이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제2호(1946. 2)를 펴내는 데 그쳤다. 편집 체제는 악보, 동요·동화·소년소설·아동극·일기문, 한글·역사·지리강좌, 이과상식 같은 내용으로 채웠다.

송영은 『별나라 속간사』에서, ‘겉놈뱅이가 없고 욕심쟁이가 없는 우리들의 나라 삼천리 조선나라는, 오죽 우리들! 적은 영웅!! 어린 별들의 손에, 이룩하여 질 것이다. / 별나라 만세 / 어린 동무 만세 / 전세계 무산아동 만세.’¹²⁾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며, 무산아동을 위한다는 현실주의 동심에 기초한 취지를 드러내고자 노력했다. 여기에 참가한 필진들은 대개 앞선 시기에 『별나라』~편집과 집필을 맡았던 이들이었다.¹³⁾ 이들의 논지는 ‘장래의 이윤 경쟁에 있어서 우승자’로서 아동상 구현에 목표를 두고 그 사회적 기능을 중시하는 데 일관했다. 하지만 『별나라』의 현실주의 동심은 나라잃은시기 전개했던 계급적 사회주의 문학이론을 강하게 드러내지는 못했다.

1945년 12월에 발간된 『아동문학』은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조선문학건설본부 아동문학위원회(위원장 정지용, 서기장 양미립)의 기관지이다.¹⁴⁾ 주간은

11) 나라잃은시기 1926년 6월부터 발간되어 1935년 2월까지 79호로 중단된 아동지로서, 주간을 맡았던 안준식과 박세영이 ‘가난한 동무를 위하여, 값싼 잡지로 나오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발했던 계급주의 아동문학을 전적으로 드러냈다. 여기에 주로 작품활동을 한 작가들은 대개가 프로문학인들이었고, 게재되는 작품의 경향 또한 『어린이』나 『아이생활』~등에 실리는 작품에 견주어 자연히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고발적·선동적·행동적 색채를 표면적으로 드러냈다. - 이재철, 『세계아동문학사전』(계몽사, 1989), 144-145쪽 참조.

12) 『별나라』~속간1호, 6-7쪽 참조.

13) 이주홍, 박세영, 박아지, 송영, 안준식, 엄홍섭, 송완순, 양고봉, 박석정, 신고송, 조벽암, 양재웅, 한효, 이기영, 홍구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14) 『매일신보』(1945. 9. 9)에서는 조선문화건설중앙위원회는 기관지를 제정·발간기로 결정했다는 기사를 실고 있다. 『문화전선』, 『문학』, 『조선아동』이 그것이다. 여기서 『조선아동』은 1945년 10월 창간호를 100쪽 예정으로 펴낼 것을 결정했

김영건이었고, 주요 집필자로는 임화·이태준·김남천 등이었다. 신문 형식으로 월 2회 간행을 계획했으나 2호를 내는 데 그쳤다. 그 뒤 조선문학가동맹 아동문학위원회의 결성되는데, 이를 발전적으로 이어받아 1947년 7월에 속간호(제3호)를 펴냈다.¹⁵⁾ 여전히 편집 겸 발행인은 김영건이 맡았고, 집필진으로는 그 무렵 조선문학가동맹 소속의 문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조벽암, 이원수, 임원호, 윤석중, 김철수, 최병화, 김상훈, 송완순, 홍구, 배인철, 이병철, 이주홍, 한백곤, 양미림, 김만선이 그들이다.

한편,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광복기 우리 문단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이로써 광복 직후의 혼란은 차차 안정되어 가고 있었으나 정치 현실은 여전히 불안이 이어졌다. 조선문학가동맹은 남북한 분단체제 수립과 함께 빨빠르게 이루어졌던 사회·개인 검열로 주요 성원이 월북하거나 지하로 잠적해서, 남은 성원은 보도연맹에 가입해 합법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까닭에 좌파 문단은 힘을 잃었다. 하지만 아동문단 쪽에서는 그 사정이 크게 달랐다. 좌파 성향의 아동문학가들은 일종의 ‘문화계릴라’ 활동을 일정하게 전개시켜 나갔다. 『아동문화』와 『어린이나라』의 발행은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948년 11월 창간호를 낸 『아동문화』와 1949년 1월 1일에 나온 『어린이나라』는 둘 다 동지사 아동원에서 발행되었고, 편집주간은 경인전쟁 때 월북한 이종성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매체였던 『아동문화』는 조선문학가동맹 아동문학위원회의 기관지인 『아동문학』을 잇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창간호를 끝으로 마감되는데, 그 편집 방향을 바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창간된 아동지가 『어린이나라』이다. 현재로선 1950년 2월호까지 간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발행인은 이대의·백남홍, 편집인은 이종성, 편집위원은 정인택·김용환이 맡

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일이 여의치 않아 그 이름을 달리하여 1945년 12월에 『아동문학』을 신문 형식으로나마 펴내지 않았나 싶다.

- 15) 이 잡지의 허가일시가 1947년 1월 16일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문화건설 중앙협의회 조선문화건설본부 아동문학위원회’에서 ‘조선문학가동맹 아동문학위원회’로 바뀌면서 새로 속간호를 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제3호가 ‘속간1호’라는 점으로 미루어 창간호와 제2호 발행 뒤, 1여 년이 넘는 공백기를 두고 다시 발간된 것으로 보인다.

왔다.¹⁶⁾

그 무렵 현실주의 동심으로 본 아동문학의 임무는 ‘어린이가 실제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의 천사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 사회의 탐구에 관한 의욕과 정열을 개발하는 데 치중’¹⁷⁾하는 것이었다. 『어린이나라』는 ‘벼르고 또 베풀면서 만들은 신년호를 내입니다. 발을 구르면서 만들어 내인’ 잡지라는 점, 그리고 ‘큰 소리를 삼가’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잡지가 되’겠다고 창간 취지를 밝히고 있다.¹⁸⁾ 박은중, 안희남, 정지용, 정태병, 이원수, 우효중, 임인수, 이성표, 송돈식, 임원호, 정현웅, 채규철, 이병철, 윤복진, 최병화, 조용만, 박화목, 정인택, 최계락, 권태웅 등이 필진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대부분은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가 경인전쟁 때 월북의 길을 택했다.¹⁹⁾

2. 천사주의 동심과 아동 계몽

앞서도 말했듯이 광복기 우파 성향의 아동문단에서는 뚜렷한 조직을 갖추지는 못했다. 단지 윤석중을 중심으로 하여 결성한 조선아동문화협회(약칭 아협)가 그 몫을 맡아 나갔다. 그들은 어린이들에게 한글과 과학을 이해시키고 민족의 얼을 부각시켜 왜로군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애썼다. 아울러 정치나 사회성을 띤 불순문학을 배격하고 순수문학을 추구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골고루 다같이 살 수 있는 훌륭한 조선나라’²⁰⁾를 만들기 위한 민족문학을 제창하였다. 천사주의 동심의 양상을 보여주는 아동지로는 『새싹』, 『소학생』, 『아

16) 작품을 뽑고 평을 써준 이는 동시부문에 정지용과 윤복진, 산문부문에 정인택이었고, 또한 1949년 5월호에는 ‘어린이나라의 노래가사 현상모집’이라는 광고가 나오는데 여기에 심사위원이었던 정지용·김기림·이병기·양주동·이원수 또한 조선문학가동맹의 성원이었다.

17) 송완순, 『아동문학의 천사주의』, 『아동문화』 창간호(1948. 11), 27-28쪽.

18) 『어린이나라』 창간호, 『편집실에서』, 42쪽 참조.

19) 이밖에도 1947년 초반 무렵 최용준에 의해 발행된 『어린이세계』, 1948년 4월 민원식에 의해 발행된 『어린이나라』, 1948년 12월 이석중의 주재로 발간된 『진달래』는 좌파 성향이 짙은 아동지였다. 이 가운데 『진달래』는 오래도록 명맥을 이어가다가 1950년 1월부터 『아동구락부』로 이름을 바꾸고, 경인전쟁이 터지기 직전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는 황규, 박태원, 이원수, 김철수, 박인해, 권태웅, 최상수, 정태병 등이 이름을 올렸다.

20) 윤석중, 『만들고나서』, 『주간 소학생』 창간호(아협, 1946. 2).

동』, 『어린이』, 『소년』을 들 수 있다.

윤석중은 1945년 12월에 을유문화사를 차린 뒤,²¹⁾ 1946년 2월 문우들과 함께 『주간소학생』을 냈다.²²⁾ 이는 이미 1945년 9월에 출범시켜 이끌고 있었던 조선 아동문화협회를 앞세워 이뤄낸 기관지 구실을 했다. 그 뒤 통권 46호부터 월간 『소학생』으로 이름과 맵시를 바꾸었다. 그리하여 경인전쟁 직전까지 79호(1950년 6월치)를 꼬박꼬박 냈다. 이처럼 『소학생』은 각 학교에서 꾸준히 읽히며 광복기 내내 발간되었던 대표적인 아동지이다.²³⁾ 5년에 걸친 일을 윤석중이 한결 같이 맡아 이끌었다.

여기에는 박세영·박태원·김동석·신고송·이원수와 같은 좌파 문인에서부터 박목월·윤석중·전영택·조지훈·박두진·권태웅과 같은 우파 문인이 두루 대표 필진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편집 체제는 교양·교훈물, 미담, 동요·동화·소년소설·동극, 글짓기 법·동요 짓는 법, 만화·연재만화, 소학생 작품, 독자 면담실 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문예물이 대략 30-40% 정도를 차지하며, 성격상으로는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교양·교훈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광복기의 혼란한 나라 현실 속에서도 ‘우리 문화의 발굴과 신문화의 창조를 위하여 굶힘없이 전진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한 조선아동문화협회의 취지문은 곧

21) 을유문화사는 1945년 12월 1일, 정진숙에 의해 창업의 깃발을 올린다. 당시 재정은 민병도가, 살림은 정진숙이, 윤석중과 조풍연은 기획, 편집, 제작을 맡기로 했다. 여기서 윤석·조풍연·민병도는 교동보통학교 동문이고, 정진숙과 민병도는 동일은행 시절부터의 친구이다. 을유문화사는 이듬해 2월 11일 그 첫사업으로 『주간 소학생』을 창간했고, 2월 중순 무렵부터 일반 단행본을 출판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22) 또한 『어린이신문』은 1945년 12월 윤석중이 고려문화사를 세우고 주간으로 펴낸 아동지이다. 처음 발행시에는 좌파 임병철이 편집인 겸 발행인, 채정근이 편집부장을 맡았고, 윤석중·정현웅·김영수·박계주가 편집동인으로 일했다. 그 뒤 1946년 4월 17호부터는 대표적인 우파 문인이었던 김영수가 주간이었고, 유명환이 편집 겸 발행인이었으며, 발행소는 줄곧 고려문화사였다. 편집 체제는 4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면에는 동요, 약보와 만화를 실었다. 2면에는 시사소식 중심으로 꾸며졌으며, 3면에는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을, 4면에서는 어린이들의 작품과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조선아동문화협회에서는 따로 ‘어린이 새소식’이라는 신문을 만들어 『주간 소학생』 부록으로 만들었다. -『주간소학생』 제8호, 12쪽 참조.

『소학생』의 창간 취지였다. 하지만 양미림의 지적대로 조선아동문화협회는 체계적으로 조직력을 갖추지도 못했고, 명백한 민족주의 노선에 입각하여 좌파 문단과 맞서려는 적극적 의지를 드러낸 단체도 아니었다. 아무튼 『소학생』은 나라잃은시기에 나왔던 『어린이』의 전통을 이어받으려는 회고적 편집 경향을 보였고, 민족주의적 성격을 이루며 광복기 아동문학의 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어린이』는 나라잃은시기 1923년 3월 20일에 소파 방정환이 중심이 되어 창간하고 개벽사에서 발행한 아동지로 1934년 7월 통권 122호까지 펴냈다. 이는 우리 아동문학의 근대적 형성에 이바지했으며, 나라잃은시기에서의 아동소년운동, 아동문학운동의 중추적 구실을 맡았던 아동지였다. 그 맥을 이어 1948년 5월 5일 ‘어린이 날’에 맞춰 123호를 복간했다.²⁴⁾ 발행인은 이응진, 편집인은 고한승, 인쇄인은 김용남이었다. 그리고 발행소는 개벽사, 인쇄소는 보성사였다. 편집 체제는 악보, 동요·동화·소년소설, 만화, 학교 자랑, 독자 차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현동염, 이영철, 고한승, 마해송, 어효선, 이원수, 박영중, 박인범, 이동찬, 임서하, 유달영, 한양근, 김광현, 이태선, 박은중, 김소엽, 정비석, 이성표, 최병화, 곽하신, 정태병 같은 문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어린이』는 복간 뒤 1년 8개월 남짓 꾸준하게 열 네 차례 발간되다가 1949년 12월에 137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이는 광복 뒤 어린이들을 계몽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민족문학 차원에서 아동문학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켰고, 아동문학운동시대를 여는 데 큰 역할을 맡았다.

『소년』은 1948년 7월에 창간되어 경인전쟁 직전까지 나온 중도파 아동지였다. 두 해 동안 방기환이 주간, 김기호가 편집 겸 발행을 맡아 이끌었다. 주간 방기환은 ‘우리들이 읽을 잡지, 소년 소녀가 읽을 잡지, 중학생, 소학생이 다 읽을 수 있는 잡지, 우리들은 그것을 바란다. 이러한 우리들의 희망에 응하여 나온 것이 바로 이 소년이다.’고 밝혔다.²⁵⁾ 그만큼 폭넓은 독자 대상을 겨냥한 『소년』은 그 무렵 가장 좋은 잡지라고 문교부장관이 추천했다. 이를 표지에서

24) 그 무렵 일간지를 보면, 개벽사는 『어린이』를 속간하고자 주간 고한승에게 5월 5일 어린이날에 복간하도록 추진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한성일보』 1948년 3월 12일자, 『평화신문』 1948년 3월 13일자 참조.

25) 『소년』 창간호, 『편집을 마치고』 참조.

밝히며 추천장의 내용을 싣고 있다.²⁶⁾ 여기에는 월북하지 않고 남았던 좌파 문인들과 새롭게 소년문화운동에 앞장서고자 했던 우파 문인들이 대거 필진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²⁷⁾ 그렇듯 『소년』은 어린이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닌 그 중간 세대인 ‘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뚜렷한 세대의식을 갖고 그들을 위한 문화운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각별한 문학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밖에, 서울이 아닌 특정 지역을 토대로 한 아동지가 발간되었다. 대구지역에서 나온 『새싹』과 『아동』 그리고 전주지역에서 나온 『파랑새』가 그것이다. 먼저 『새싹』은 1946년 1월 대구지역에서 발간된 아동지로 모두 17호까지 발간되었다. 편집 겸 발행은 최해태가 맡았다. 주요 집필자는 이응창, 박영중, 김홍섭, 김진태, 이석봉, 박은중 등이었다. 또한 『아동』은 1945년 12월 대구지역 최초의 아동문학단체인 ‘조선아동회’의 기관지였다. 이는 박목월 주재로 1946년 4월에 창간되어 1949년에 폐간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김상신·김사엽·유순애·김성철 등이 교양물을, 박영중·윤복진·김성도·황운섭·김진태·김홍섭 등이 동시·동요를, 김홍섭·김진태·윤백·김춘 등이 동화와 소년소설을 집필했다.

다음으로 『파랑새』는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라북도아동교육연구회의 기관지로서,²⁸⁾ 확인된 바 1946년 2월에 창간하여 제4호(1946. 5)까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발행인은 김수사, 인쇄인은 오영문이었고, 주요 집필진으로 백양춘, 김해강, 김목랑, 김표 등이 참여했다. 신석정은 <창간사>에서 “먼 앞날을 이어줄 어린 동무들의 가슴깊이 파들어 갔든 가장 무섭고 가장 더러운 티끌을 우리는 하루바삐 추방하는 것으로써 그들의 가슴 한 구석에 달달 떨어뜨리고

26) ‘월간잡지 『소년』은 소년 소녀 과외독물로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추천함 1946년 11월 22일’ -『소년』 제5호, 앞장 속표지 참조.

27) 이를테면 윤석중, 조미리, 이종성, 김원룡, 이원수, 방기환, 정비석, 박태원, 김소운, 양미림, 남대우, 전인택, 이성표, 송근영, 이태선, 박목월, 임원호, 임인수, 이영철, 최병화, 김래성, 박은중, 조풍연, 최태웅, 홍구범, 공중인, 박목월, 김송, 오순일, 나동호, 박화목, 김소엽, 김래성, 최인옥, 이종환, 권태웅, 이선구, 박윤희, 조지훈, 임옥인, 최계락 등이 참가하고 있다.

28) 한편 같은 이름의 아동지 발간에 대한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1946년 3월 신예 아동문학인들이 주체가 되어 ‘조선아동문화연구회’를 조직되어 기관지 『파랑새』를 편집중이며 4월 초순에 창간호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어 안타깝다. -『자유신문』 1946년 3월 9일자 참조.

고 앉았던 여원 파랑새를 저 푸른 하늘을 향하고 자유롭게 내려 주는 것으로써 위치와 생명을 삼는 것이 이 『파랑새』~지의 설계도”라고 밝혔다.

서울 중심의 매체들이 당시의 좌·우파 대립에 휘말려 정치성이 농후한 작품이나 기사를 실었던 데 견주어, 이들 매체는 일체의 정치적 태도를 지양하고 계몽적 요소와 문예물 게재에 큰 비중을 두었다. 결국 이들 아동지들은 특정 지역의 아동문학을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주요 독자 대상을 소년운동가, 어머니, 교사 또는 교육연구자에 고정시키고 펴낸 아동지도 여럿 나왔다. 『소년운동』과 『보육』~그리고 『아동교육』이 그것이다.²⁹⁾ 그리고 어린이가 아닌 중학생 이상을 독자 대상으로 삼은 잡지도 여럿 나왔다. 『신소녀』, 『학생공론』, 『중학생』, 『학생』, 『학생동무』, 『중학생』, 『여학생』~등을 들 수 있다.

시간적으로 보면 불과 5년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광복기에 나타난 아동문학 양상은 어느 시대 못지 않게 여러 문제점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의 혼미적 상황 속에서 보여주었던 좌파 계열의 현실주의 동심과 우파 계열의 천사주의 동심을 동시에 병존시킴으로써 광복기 아동문학운동의 다양한 양상을 그대로 드러냈던 것이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일련의 아동지를 통한 매체 활동은 광복기 어린이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문화운동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광복기 아동지 또한 혼란스러운 시대상과 함께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윤석중의 말처럼 광복기 아동문학 하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점은, 월북파는 ‘잃은 것은 동심이요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였는데, 월남파는 ‘잃은 것은 이데올로기요 얻은 것은 동심’이었다.³⁰⁾ 결국 광복기의 나라 현실 아래서 우리의 아동

29) 남기훈이 펴낸 『소년운동』은 그 대상이 소년운동가로서, 1946년 3월에 창간호를 냈다. 이는 조선소년운동중앙협의회 기관지 구실을 했다. 창간호 발간 뒤 휴간 중 1947년 4월 속간호를 냈다. 1946년 4월 창간호를 낸 『보육』은 어린이를 기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삼았다. 편집 겸 발행인은 최명희, 인쇄인은 임병철이었고, 고려문화사공무국에서 박았고, 조선보육사에서 펴냈다. 제3호(1946. 7)를 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47년 창간호를 낸 『아동교육』은 사범대 아동교육전공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국립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내 아동교육연구회에서 엮었다. 제16호(1949. 10-11)를 낸 것으로 알려진다.

30) 윤석중(1988), 『동심을 지킨 아동문학가들』, 『동서문학』~1988년 8월호, 61쪽 참조.

문학 또한 우리 문학이 깊이 고심했던 민족 현실의 한 방향을 잘 보여준다. 광복기는 나라잃은시기를 결산하는 방향과 모색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분단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문학현상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해 준 시기라는 점에 각별한 의의를 둘 수 있다.

Ⅲ. 경남·부산지역의 아동문학가와 그 활동

을유광복은 나라 안쪽의 생활현실 뿐 아니라 문학현장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광복 직후 좌파 문인들은 임화를 의장으로 삼아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를 마련했고,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위원장 이기영)을 조직했다. 경남·부산 출신의 문인으로는 서기장에 박석정, 중앙집행위원에 권환·엄홍섭·신고송·이주홍, 동맹원에 김병호·김성봉·권환·박석정·김용호·손풍산·신고송·엄홍섭·이주홍·이원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비롯된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연맹(위원장 한설야)은 1945년 9월 20일에 그 조직을 마무리했다. 여기에 이름을 내세운 경남·부산지역 문인으로는 권환·박석정·엄홍섭이, 연극에 신고송이, 미술에 이주홍을 들 수 있다.³¹⁾

한편 1946년 넘어서면서 차츰 외부 정세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우파 성향이 두드러졌던 조선문필가협회결성준비위원회에서도 ‘추진위원명단’을 1946년 3월에 발표했다. 경남·부산지역 문인으로 김달진·유치환·김소운·주수원·엄홍섭·김병호·이원수가 이름을 엮었다.³²⁾ 우파 성향의 김소운·유치환과 마찬가지로 좌파 성향의 엄홍섭·김병호·이원수는 둘 다에 참여하고 있다. 그 뒤 1948년 임시정부 수립, 게다가 1949년 10월에는 조선문학가동맹이 마침내 등록을 취소당했다. 국민보도연맹의 전향사업은 나라 곳곳을 뒤덮어 좌파 문인들이 설자리는 매우 어려웠다.

좌·우파의 이념 대립 탓인지, 광복기 문단에서 아동문학에만 전념한 작가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광복기 아동문단은 무엇보다 유명 아동문학가의 매체 활

31) 계훈모 엮음, 『한국언론연표 2(1945-1950)』(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1987), 675쪽.

32) 계훈모 엮음, 앞의 책, 685쪽.

동과 더불어 소지역에서의 두드러진 투고활동을 보여주었다. 특히 경남·부산 지역은 일찍이 나라잃은시기부터 지역 안팎으로 아동문학의 기운을 내면화시키는 데 큰 몫을 맡았던 곳이다. 여기서는 경남·부산지역의 아동문학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앞선 시기에 활동했던 기성문인들, 그리고 광복기에 등장한 신예문인과 어린이들과 교사들의 작품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광복기 경남·부산지역 아동문단의 면모를 이해하는 데 있어 첫걸음이 되는 까닭이다.

1. 기성문인의 매체 활동과 지역문단

나라잃은시기부터 권환·이성홍·이주홍·엄홍섭·박석정·신고송·이원수, 그 뒤를 잇는 김병호·손풍산·이구월·양우정·김성봉은 모두 좌파 문단에서 활발하게 매체 활동을 거듭했던 문인이었다.³³⁾ 광복을 맞아 여러 아동지에 이름을 올린 경남·부산지역 출신의 문인으로는 이원수, 이주홍, 신고송, 남대우, 이구월, 박석정, 최상수, 엄홍섭, 김용호, 김소운, 김상옥, 최인옥, 김상훈, 조연현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아동문학의 성장과 더불어 광복기 아동문단의 앞자리에 서서 작품 활동을 벌였다. 그 주요 매체는 『새동무』, 『소학생』, 『어린이나라』, 『소년』이었다. 광복기 경남·부산지역 기성문인들의 작품 게재 현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³⁴⁾

이름	발표지	횟수	작품유형	비고
이원수	아동문학	1	동시	동화 연계
	새동무	2	동시, 소년시	
	소학생	16	소년시, 동요	
	소년	5	소년시, 소년소설, 동요	
	어린이	3	동요, 소년시	
	어린이나라	8	동요, 동화	
	진달래	1	소년시	

33) 이들의 문학 활동에 대해서는 박태일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박태일, 『경남지역 계급주의 시문학 연구』, 『어문학』 제80집(한국어문학회, 2003. 6).

34) 글쓴이가 조사한 아동지를 대상으로 삼은 내용이다. 빠진 곳은 앞으로 채워야 할 일거리로 남아 있다.

이름	발표지	횟수	작품유형	비고
이주홍	별나라	3	표지2, 동요	안기영 작곡
	새동무	3	표지1, 동요	
	아동문학	2	사화, 아동극	
신고송	어린이신문	4	동요	김순남 작곡1 연재
	별나라	2	소년일기문	
	새동무	1	동요	
	소학생	4	어린이연극, 동요	
남대우	어린이신문	2	동요	김순남 작곡1
	새동무	2	동요	
	소년	2	동시	
이구월	새싹	4	동요, 산문	
박석정	별나라	1	동요	
	새동무	1	동요	
최상수	진달래	1	산문	
	소학생	2	동화	
엄홍섭	별나라	2	산문	
	소학생	1	소년소설	
김용호	새동무	2	동요(곡보), 산문	김지문 곡
김상옥	소학생	5	동요	
최인옥	소년	1	소설	
김상훈	아동문학	1	동시	
양재응	별나라	1	산문	
김소운	소년	1	동화	
	어린이나라	1	산문	

이원수(1911-1981)는 나라잃은시기 주로 마산지역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광복을 맞아 서울로 터전을 옮긴 다음,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을 거쳐 조선문학가동맹에 들었던 문인이다. 이는 나라잃은시기에 계급주의 아동문단에 관여해 온 이주홍·신고송의 인맥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광복기 아동지 『소학생』, 『아동문학』, 『새동무』, 『어린이나라』, 『소년』, 『어린이』, 『진달래』, 『아동문화』에 동요·동화·소년시·소년소설·평론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작품활동을 벌였다. 또한 그는 여러 아동지에서 어린이 작품들을 심사 또는 지도를 맡았다.³⁵⁾

그리고 이원수는 1945년 12월에 창간한 좌파 아동지인 『새동무』의 편집자문역을 맡았다. 이를 주관했던 김원룡은 그와 동향 문우였던 까닭이었다. 그는 마산의 소조선 아동문학협회는 간판을 내걸고 1947년 5월부터 『소년운동』을 펴냈다. 하지만 임시정부 수립 이후 나라 정세가 다르게 바뀌자 1949년 4월 30일 전국아동문학작가협회 결성대회 때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 뒤 그는 1949년 12월 전국문학가협회 문학부와 한국청년문학가협회를 중심으로 일반무소속 작가와 전향문학인을 포함한 한국문학가협회(위원장 박종화) 결성 때 추진회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³⁵⁾

나라잃은시기부터 조직과 매체 편집·장정, 연극, 성인문학·아동문학에 두루 걸치는 이주홍(1906-1987)의 활동은 두드러진 바 있다. 앞선 시기부터 열성적인 투고로 인연이 깊었던 『신소년』에 편집기자로 일하면서, 나라잃은시기 우리 문단을 이끌었던 그는 광복 초기 서울문단에서 활발한 창작, 조직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1945년 8월 ‘조선문화건설중앙위원회’의 아동문학위원회(위원장 정지용)에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 뒤 1945년 12월 조선문학가동맹 아동문학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한 조직 활동에 걸맞게 이주홍은 좌파 계열의 아동지, 『새동무』³⁷⁾와 『별나라』를 중심으로 표지 장정을 도맡아 그렸고, 동요와 아동극을 주로 발표하면서,³⁸⁾ 줄기차게 좌파 문단의 주류를 끌어왔다. 아동문학은 물론이고 득의의 영

35) 이원수는 『소학생』에서 이희승, 정지용, 윤석중과 함께 소학생 작품들을 심사했고, 『소년』과 『진달래』에 실리는 어린이 작품들을 지도했으며, 『어린이』의 ‘우리 차지’에 실리는 작품들을 선별하고 작품평을 맡았다. 이렇듯 그는 좌·우파 문단의 두 진영을 넘나들며 가장 두드러진 작품 활동을 보여주었다.

36) 이원수의 소년소설 『어린 별들』은 『아동구락부』 1950년 2월호부터 5·6월 합본호에 연재되었다가 중단된 작품이다. 뒷날 이는 『5월의 노래』(신구문화사, 1953)로 발간되었다. -원종관, 『아동문학과 비평정신』(창작과비평사, 2001), 124쪽 참조.

37) 『새동무』 제2호의 ‘예고(豫告)’란에 이주홍의 창작동화집 『살구꽃』(새동무사)이 인쇄중이라는 광고가 나온다. 이에 덧붙여 ‘어린이동무 여러분에게 보내는 반가운 선물 재미난 동화를 가뜰 시고서 멀지 않아 갈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새동무』 제2호, 뒷장 속표지 참조.

38) 이주홍의 활동을 살펴보면, 『새동무』 창간호의 표지와 컷을 그렸고, 동요 『광고판』을 발표, 10호에 작문 『앵도』를 발표했다. 『별나라』 1호와 2호의 표지장정을

역인 출판미술에서는 그의 솜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할 정도이다. 그만큼 그가 좌파 아동문학가로서 앞장서 활동했다는 사실은 광복기 좌파 문단의 주요한 흐름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나라 정세가 점점 어려워지고 좌파의 입지 위축에 따라, 1947년 그는 부산으로 내려와 매체 활동과 거리를 둔 채 새로운 변신을 모색하게 되었다.³⁹⁾

신고송(1907-?)은 앞선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인 좌파 문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특히 그는 프로연극 이론의 토대를 갖추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나라잃은시기의 카프 해체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가, 광복 후 그는 조선프로레타리아 문학동맹 중앙집행위원, 조선문학가동맹 회국부 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정치성을 띤 선전연극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아동문학에도 그대로 이어졌는데, 광복기 그의 두드러진 활동은 아동극에 남다른 열정을 쏟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는 1948년 무렵에 월북하면서 모습을 감춘다.⁴⁰⁾

남대우(1913-1948)는 1946년 2월에 조선문학가동맹의 ‘하동문화협회’를 창립했다고 알려질 뿐, 광복기에 어떤 단체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 시기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주로 좌파 아동지에 주로 작품을 싣고 있다. 『어린이신문』의 ‘김순남 작곡집’란에 동요 『이십리고개』의 악보가 실렸고, 『새동무』와 『소년』에 동시를 발표했다. 그리고 동시와 동요집 『종달새』(새동무사 발행)를 펴낸 것으로 보인다.⁴¹⁾

덧붙여 그의 광복기 행적으로는 1946년 『우리동무』~제1집(하동문화협회)과 『우리동무』~제2집(자가본)을 출간하였고, 1947년 『예술신문사』~하동지국장을 지냈다. 또한 그는 1947년 7월 『동아일보』~축간으로 다시 지국을 경영했고, 『새

그렸으며, 『어린 병사의 노래』의 악보(안기영 작곡)가 실렸다. 또한 『아동문학』~3호(1947. 7)에 사화 『동봉 김시습』과 아동극 『토끼와 가정』, 『글동무』~창간호(1948. 12)의 표지와 속그림을 그렸다.

39) 광복 이후 그의 문학살이에 대해서는 박태일의 『이주홍론 -교육자로서 걸었던 길』, 『작가세계』(한국작가교수회, 2003)을 참조하기 바란다.

40) 신고송은 『어린이신문』의 ‘김순남 작곡집’란에 동요 3편의 악보를 실었고, 동요 『소년 행진곡』을 발표했다. 그리고 『어린이나라』·『별나라』·『새동무』에 동요와 소년소설을 실었고, 『소학생』에 동요와 아동극을 발표했다. 아울러 그는 1946년 4월 무렵에 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47년 11월에도 아동지에 동요를 다수 발표한 것으로 미루어, 1948년 무렵에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

41) 『새동무』~제9호, 21쪽 참조.

동무』(김원룡 발행)의 하동지사장을 맡았고, 하동서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렇듯 그는 하동지역에 줄곧 터잡고 살면서 지역아동문학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큰 힘을 쏟았던 것이다.

박석정(1911-?)은 1945년 9월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결성 때 문학동맹에 이름을 올리면서 문학을 통한 정치적 투쟁에 깊이 몸담았다. 그 무렵 그는 좌파 계열의 아동지 『별나라』와 『새동무』에 동요를 발표했다. 이를 마지막으로 그는 1946년 6월 무렵에 월북했던 까닭에, 남쪽에서는 더 이상 작품을 접할 수 없게 되었다.⁴²⁾ 나라잃은시기부터 카프 맹원이자 『별나라』 편집동인으로 활동했던 엄홍섭(1906-?) 또한 1945년 9월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결성 때 문학동맹에 이름을 올렸다. 광복기 그의 아동문학 활동은 아동지 『별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좌파 계열의 문인이었던 이구월(1904-?)은 대구지역에서 발간된 아동지 『새싹』에 동요 다수를 싣고 있다. 하지만 그는 1949년 동시집 『새봄』(한국문화보급회 경남지부, 1949)의 출판을 빌어 전향 표지를 확실히 했다. 이 밖에도 양재웅·김소운·최상수·김용호가 기성문인의 대접을 받으며 아동지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광복기 아동문단을 풍성하게 이끌어 가고 있었다.

한편, 앞선 시기에 이미 다른 자리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광복 이후 아동문학에 남달리 관심을 보여준 문인들이 있다. 김상옥, 최인옥, 김상훈이 그들이다. 김상옥(1920-)은 나라잃은시기 『문장』에 시조가 당선되어 활동했지만, 1949년 4월 박영중·윤석중·방기환 등이 발기한 전국아동문학작가협회 결성대회에 참석하여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문인이다. 그는 주로 『소학생』을 통해 다수의 동요를 발표했다. 그 무렵부터 시작된 아동문학에 대한 그의 관심과 활동은 뒷날 동시집 『석류꽃』(현대사, 1952)와 『꽃 속에 묻힌 집』(청우출판사, 1958)을 펴내는 데 이른다.

최인옥(1920-1972)은 나라잃은시기 이미 소설을 발표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지만, 광복기에는 『소년』에 소년소설을 더러 발표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관심은 뒷날 소년소설집 『일곱 별 소년』(대양출판사, 1954)으로 결실을 보이고

42) 박석정의 문학살이에 대해서는 차민기가 세세하게 살펴 놓았다. -차민기, 『박석정의 삶과 문학』, 『지역문학연구』 제7호(경남지역문화회, 2001).

있다. 그리고 광복과 함께 조선문학가동맹 서울지부 결성을 위한 준비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민중조선』을 창간하여 펴내면서 문학실천에 힘을 더했던 김상훈(1919-1987)은 『아동문학』 3호(1947. 7)에 자신의 유일한 동요 『종달새』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조연현의 참여도 눈여겨볼 일이다. 그는 1949년 4월 30일 전국아동문학작가협회 결성대회 때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소년』 15호부터 『문학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다.

앞에서 든 경남·부산 출신의 기성문인들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광복기에도 아동문학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나라잃은 시기부터 좌파 아동문단을 앞장서 이끌었던 이주홍·엄홍섭·신고송·박석정·남대우의 활동은 그런 점에서 한결같다. 그리고 이원수가 그 일을 거들며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나라잃은시기부터 서로 연대를 키워 왔을 이들은 광복기에도 활발하게 발표 지면을 마련하면서 경남·부산지역의 아동문단에 크게 이바지했다.⁴³⁾

2. 신예문인의 등장과 독자 투고문단

광복기 아동문단은 새로운 문인들이 등장하면서 더욱 이채를 띠었다. 거기에는 권태웅, 박화목, 어효선, 양미림, 임인수 등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는 데 있다. 물론 이들 말고도 술한 신예문인들이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경남·부산지역 출신의 신예문인으로서는 김원룡과 최계락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광복과 더불어 아동문학이라는 영역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애썼다. 이들 또한 『새동무』, 『소학생』, 『어린이나라』, 『소년』과 같은 아동지를 통해 아동문학에의 관심을 고조시켰고, 경남·부산지역 아동문단을 새롭게 이끌어 나갔던 셈이다.

먼저, 마산 출신의 김원룡(1911-1982)은 1947년 좌파 아동지인 『새동무』의

43) 이와 더불어 지역 안쪽에서 이루어졌던 소지역 활동, 곧 문맹 하부 조직과 두드러진 매체 발간 또한 두드러진 바 있다. 조선문학가동맹은 1945년 창립부터 ‘지방문화연맹지부’를 두었다. 경남지역 지부는 모두 여섯이 확인된다. ‘문학가동맹 진주지부’, ‘하동문화협회’, ‘삼천포예술동맹’, ‘진교예술동맹’, ‘마산문화동맹문학부’, ‘부산문학가동맹’이 그것이다.

편집 겸 발행인을 맡으면서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새동무』를 비롯해서 『어린이신문』, 『어린이나라』, 『소년』에 다수의 동요와 동화를 발표했고, 그러한 활동은 동요·동시집 『내 고향』(새동무사, 1947)으로 엮여져 나왔다. 이처럼 그는 아동문학가이자 아동지 출판인으로서 광복기의 아동문화운동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동문학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의 주요한 행적 가운데 하나는 지역문학 차원에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그가 주재한 『새동무』의 ‘우리들의 작품’란에 마산·진주·하동지역 어린이들의 작품이 실리고 있다는 점, 재빨리 마산지사⁴⁴⁾를 설치하여 어린이들과 지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동향의 문인 이원수와 매우 가깝게 지내면서 『새동무』의 편집을 맡았고, 경인전쟁 뒤부터는 이원수 주간으로 발행한 『소년세계』의 편집일을 함께 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광복기 경남·부산의 아동문단은 최계락(1930-1970)이라는 역량있는 신인을 얻게 되었다. 진주 출신인 그는 주로 『소학생』, 『새동무』를 통해 작품을 발표하면서 학생문인으로 널리 이름을 알렸던 문인이다. 이를테면 『소학생』 44호에 동요 『해가 진 남강』, 45호에 『조각달』, 46호에 동요 『봄바람』, 50호에 동요 『수양버들』 발표, 『새동무』 7호에 동요 『봄이 오면』, 9호에 동요 『보슬비』를 발표, 『어린이나라』 1949년 10월호에 동시 『거미줄』 발표, 『소년』 20호에 시 『별』을 발표했다. 결국 그의 문학 수업은 이들 아동지를 통해 이루어진 셈이다.

그리고 전문 문학인은 아니었지만, 경남·부산지역 출신의 주요 인사들도 아동문학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한글학자 이극로와 최현배, 만화가 김용환과 김의환이 그들이다. 이극로(1897-1982)는 1947년 2월 문교부에서 선출한 ‘국어정화위원회’ 위원 18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광복기 여러 아동지에 어린이를 위한 유익한 글을 싣었는데, 각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새동무』에 동요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한글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동요를 창작했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1946년 문교부 편수국장을 지낸 최현배

44) 마산의 ‘대학서점’(마산부 원정 119)을 광고하는 자리에서 그 곳이 ‘새동무 마산지사’라고 적고 있다. -『새동무』 9호 참조.

(1894-1970)는 『소학생』에 ‘재미나는 우리말’을 연재하기도 했다. 마산 출신의 만화가 김용환(1912-1998)⁴⁵⁾은 『소학생』 창간부터 만화를 도맡아 연재했고, 그의 동생인 김의환은 『어린이나라』에 그림과 만화를 주로 그렸다.

한편, 아동지의 대상 독자는 주로 어린이였다. 아울러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부모 또는 아동교육연구자들이 그 대상이었다.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아동지에서는 주요 독자층인 어린이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뜻에서 ‘어린이 작품란’을 두고,⁴⁶⁾ 그들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선별하여 싣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동요 작품뿐 아니라 작문, 도화, 습자 분야까지 포함된다. 이는 어린이들에게 집필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창작 욕구와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다.

먼저, 광복기 아동지에 투고하여 이름을 올린 경남·부산지역 어린이들의 투고 문단을 시·군 단위로 나누어 도표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군	학교명	발표지	횟수	작품유형	비고
부산시	수영국교	어린이신문	6	동요	학교명 없음
	남부민국교		1	동요	
	부산진국교	소학생	2	동요	
	사범부속국교	새싹	2	동요	
		어린이	1	동요	
	영도국교	어린이	1	동요	
	내신국교	소년	1	소년시	
	구포국교	소년	1	소년시	
	화명국교	소년	1	소년시	
	토성국교	소년	1	소년시	
	동아대부속중학	소년	1	소년시	
	부산공업중학교	소년	1	소녀시	
	동대신동, 기타	소년	2	소년시	

45) 그 무렵 김용환은 만화책 『토끼와 거북이』(1946년 무렵, 32쪽 분량)을 발간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만화사에서 단행본 만화의 효시로 보고 있다. 이를 계기로 1947년 무렵부터 16쪽 안팎의 조잡한 만화책(일명 ‘떼기’로 불림) 발행이 성행했다.

46) 이를 하나하나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신문』의 ‘어린이 작품’, 『진달래』의 ‘동무들의 작품’, 『소학생』의 ‘소학생 작품집’, 『새싹』의 ‘우리 차지’, 『새동무』의 ‘우리들의 작품’, 『어린이나라』의 ‘우리들의 작품’, 『어린이』의 ‘독자 차지’, 『소년』의 ‘소년의 시’ 란이 그것이다.

시·군	학교명	발표지	횟수	작품유형	비고
김해시	제일국교	어린이신문	1	작문	학교 소개
	대저국교	소년	1	소년시	
마산시	성호국교	소학생	6	동요, 작문	
		새동무	1		
	회원국교	새동무	3	동요	
	완월국교	새동무	1	동요	
	마산상고	새동무	1	동요	
사천시	용산국교	소학생	1	동요	
양산시	양산공립국교	소년	1	소년시	
	물금국교	소년	1	소년시	
울산시	장생포국교	어린이나라	2	작문, 동요	
	구룡공립학교	어린이나라	1	작문	
	태화국교	소년	1	소년시	
	기타	소년	1	소년시	
진주시	진주중학교	소학생	4	동요	최계락 4편 최계락 3편
		새동무	3	동요	
	진성중학교	새동무	2	동요	
	중앙학교	소년	1	소년시	
창녕군	동쪽국교	소년	1	소년시	
하동군	하동국교	새동무	1	동요	
		어린이신문	1	동요	
함안군	대산국교	어린이신문	1	작문	
	칠원국교	소학생	1	동요	
함양군	지곡국교	어린이신문	2	동요, 작문	
	병곡국교	소학생	1	동요	

이로 미루어 볼 때, 광복기 경남·부산지역 어린이 투고문단은 부산·마산·울산·진주·김해·사천·양산·하동·창녕·함안·함양지역에 걸쳐 두루 조성되어 있었지만, 아쉽게도 특정 학교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어린이의 투고 문단의 현황을 다른 지역과 견주어 보면, 서울지역 다음으로 많았다.⁴⁷⁾ 굳이 그 비율을 따진다면 서울지역의 20% 정도였다. 이렇듯 경남·부산

47) 어린이들의 작품 게재는 서울(250회) > 경남·부산(47회) > 대구·경북(32회) > 경기·인천(22회) > 개성(17회) > 충남·대전(12회) > 전남·광주(8회) > 강원(8회) > 전북(5회) > 제주(1회)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지역 어린이들이 아동지의 독자와 투고자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지역문인들의 활동이 뒷받침된 덕택이라 하겠다.

또한, 여러 아동지에서는 특정 학교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를 추진한 아동지는 『어린이신문』, 『소학생』이다.⁴⁸⁾ 이를테면 『어린이신문』(1946. 7. 12)에서는 ‘우리학교 자랑’란을 두어 부산시 수영국민학교를 특집으로 다루어 어린이 3명의 동요를 싣고 있다. 『소학생』에서는 ‘우리학교 교가’란을 두어 학교를 알렸는데, 51호에 부산시 영도국민학교, 70호에 부산시 성남국민학교를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소학생』에서는 ‘우리학교 작품’란을 두어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75호에 ‘마산 성호학교치’로 어린이 작품과 학교장의 ‘나의 당부’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해당 아동지의 ‘어린이 작품’란에 꾸준히 작품을 보내준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광복기의 대표적 아동지라 할 수 있는 『새동무』와 『소학생』에서는 ‘선생님 페이지’란을 둬으로써 교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부산시 장안국교의 김영곤, 마산시 회원국교의 배우술, 마산시 완월국교의 조봉제, 하동국교의 김승갑 교사가 나서서 동요를 발표했다. 이는 결국 어린이들의 지도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듯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가들은 광복 초기부터 서울과 지역 안쪽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특히 신예 아동문학가의 등장과 여러 인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앞선 시기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전통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또한 경남·부산지역 어린이와 교사들의 투고 문단은 소지역 아동문학의 실질적이고 현장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다. 결국 이 또한 앞선 나라잃은시기 경남·부산 출신의 아동문학가들이 다져 놓은 바탕 위에서 그 맥을 충분히 이어받아 역동적이고 뚜렷한 문학 실천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서울지역 어린이의 투고가 월등히 많았고, 경남·부산지역 다음으로 경북·대구지역 어린이들의 투고 작품이 많았다. 그리고 눈여겨볼 것은 개성지역 어린이의 작품 투고가 광복기 내내 이어졌다는 점이다.

- 48) 한편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펴냈던 『새싹』에는 대개가 경북·대구지역의 초등학생들의 작품을 올렸다. 그만큼 지역 아동지로서 맡은 몫을 어린이들에게도 그대로 베풀었다고 하겠다. 이 가운데 『새싹』 14호에서는 ‘경남관’을 마련하여, 부산 부속국민학교 4년 어린이의 동시 2편(이호순, 김정희)을 싣고 있다.

IV. 마무리

광복기는 우리 아동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광복기 아동문학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찾아내고 따져들어야 할 데가 많다. 광복기에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벌인 아동문학가는 물론이고, 아동문학 매체에 대한 사료 발굴과 구명도 뜻있는 일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이 글은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광복기 아동지를 대거 발굴하여 그 면모를 실증적으로 밝혀보고자 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광복기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전통과 흐름을 구체적으로 밝혀냄으로써 장차 마땅한 자리매김에 이르고자 하는 목표 아래 씌어졌다. 논의를 줄여 마무리로 삼는다.

먼저, 광복기에는 30여 가지를 웃도는 아동지들이 쏟아지듯 나왔다. 그 양적 풍성함은 어느 시대 못지 않게 두드러졌다. 광복기에 나온 아동지들은 나라 현실에 입각하여 아동문학운동을 주창했다. 따라서 광복기 아동문단은 이들 매체 발간과 아동문학가들의 작품 활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광복기 아동문단의 양상은 민족주의 동심에 기초한 두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현실주의 동심과 천사주의 동심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이들 문단의 대립상은 조직적이고 정돈된 것은 아니었다.

첫째, 현실주의 동심을 내세운 아동지로는 『새동무』, 『별나라』, 『아동문학』, 『아동문화』, 『어린이나라』, 『진달래』, 『아동구락부』를 들 수 있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문인들은 대개 조선문학건설본부 또는 조선문학가동맹의 맹원들이었다. 그런 까닭에 이들 아동지, 특히 『새동무』와 『별나라』 그리고 『아동문학』은 광복 직후 좌파 성향의 극한적이고 선동적인 논조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현실주의적 동심을 내세우고 부르짖었다. 그 뒤 임시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좌파 문단은 힘을 잃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아동문학 쪽에서는 그 사정이 조금 달랐다. 좌파 성향의 아동문학가들은 일종의 ‘문화계릴라’ 활동을 일정하게 전개시켜 나갔다. 『아동문화』와 『어린이나라』 그리고 『진달래』와 『아동구락부』의 발행은 바로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었다.

둘째, 광복기 우파 계열의 문단은 뚜렷한 조직을 갖추진 못했다. 천사주의 동

심을 표방한 아동지로는 『새싹』, 『소학생』, 『아동』, 『어린이』, 『소년』을 들 수 있다. 이들 아동지들은 광복기의 당면 과제였던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교육적 요소를 나름대로 내세우면서 민족주의적 성격을 지녔다. 특히 각 학교에서 꾸준히 읽히며 광복기 내내 윤석중이 한결같이 맡아 이끌었던 『소학생』은 대표적인 아동지였다. 또한 『어린이』와 『소년』은 광복기 어린이들을 계몽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광복기 아동문학운동시대를 여는 데 큰 역할을 맡았던 매체였다.

다음으로, 광복기 아동문학은 무엇보다 유명 아동문학가와 매체 활동, 그리고 소지역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주었다. 특히 경남·부산지역은 일찍이 나라잃은시기부터 지역 안팎으로 아동문학의 기운을 내면화시키는 데 큰 몫을 맡았던 곳이었다. 따라서 경남·부산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앞선 시기에 활동했던 기성문인들, 광복기에 등장한 신예문인과 어린이들과 교사들의 투고문단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첫째, 광복기 아동지에 이름을 올린 경남·부산지역의 기성문인으로는 이원수, 이주홍, 신고송, 남대우, 이구월, 박석정, 최상수, 엄홍섭, 김용호, 김소운, 김상옥, 최인옥, 김상훈, 조연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광복기 아동문학의 성장과 더불어 그 앞자리에 서서 문학 활동을 벌였다. 특히 나라잃은시기부터 좌파 아동문단을 앞장서 이끌었던 이주홍·엄홍섭·신고송·박석정·남대우의 활동은 그런 점에서 한결같았다. 그리고 이원수가 양쪽 문단을 오가며 가장 두드러지게 활동하고 있었다. 결국 광복기 경남·부산지역의 아동문학은 이들의 활동으로 새로운 전통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둘째, 새로운 문인들이 작품을 발표하면서 광복기 경남·부산지역 아동문단은 이채를 띠었다. 김원룡과 최계락을 꼽을 수 있었다. 이들은 아동문학이라는 영역을 통해 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애썼다. 그리고 광복기 경남·부산지역 투고문단, 특히 어린이들의 투고는 여러 지역에 걸쳐 두루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현황은 서울지역 다음으로 많았다. 그만큼 경남·부산지역 어린이들의 관심과 창작열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광복기 경남·부산지역의 아동문학은 앞선 나라잃은시기 경남·부산 출신의 아동문학가들이 다져 놓은 바탕 위에서 그 맥을 충분히 이어받아 역동적이고 뚜렷한 문

학 실천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었다.

광복기 아동문학 또한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소중한 문학 자산이다. 이 글은 광복기 아동문학 연구에 있어 주요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는 작업이었다. 아동지의 발굴과 실증적 성격 규명이 그 하나요, 이를 통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면모에 대한 고찰이 다른 하나였다. 성글게나마 광복기 아동지와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전통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본 셈이다.

다만 이 글은 사료 발굴과 그 소개에 초점을 맞춘 까닭에, 광복기 아동문학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내놓지는 못했다. 또한 광복기 아동지를 중심으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특성을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일간지 또는 개인 작품집으로 그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광복기 아동지문학의 매체·조직·작품·작품·작가에 대한 개별 조사와 갈무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지역문학 연구의 차원에서 아동문학의 됴됨이와 의의를 따지는 일이 한 단계 높은 일거리로 남았다. 이 글이 우리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지역문학 연구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 아동문학, 아동지, 현실주의 동심, 처사주의 동심, 지역문학, 광복기, 『새동무』, 『소학생』

참고문헌

- 계훈모 엮음, 『한국언론연표 II』(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1987)
- 구인환과 여럿, 『아동문학』(서울대출판부, 1973)
- 권순궁, 『현실주의 동화론과 삶의 동화운동』, 『역사와 문학적 진실』(살림터, 1997)
- 김요섭, 『민족문학으로서의 어린이와 전원』, 『현대아동문학』 창간호, 1973.
- 김자연, 『아동문학 이해와 창작의 실제』(청동거울, 2003)
- 김정의, 『한국소년운동사』(민족문화사, 1992)
- 김지은, 『한국 근대 현실주의 동시 연구』, 경남대 석사논문, (경남대 대학원, 1999. 12)
- 김효진, 『‘소학생’지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단국대 대학원, 1992)
- 대한출판문화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30년사』(대한출판문화협회, 1977)
- 박민수, 『아동문학의 시학』(양서원, 1993)
- 박춘식, 『아동문학의 이론과 실천』(학문사, 1986)
- 박태일, 『이주홍론 -교육자로서 걸었던 길』, 『작가세계』(한국작가교수회, 2003)
- _____, 『경남지역 계급주의 시문학 연구』, 『어문학』 80집(한국어문학회, 2003. 6)
- 박화목, 『아동문학개론』(민문고, 1989)
- 사계 이재철선생 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엮음, 『한국아동문학 작가 작품론』(서문당, 1991)
- 석용원, 『아동문학원론』(학연사, 1982)
- 신명숙, 『어린이 잡지를 보며 자란 아이들 -1920년대에서 해방까지의 어린이 잡지』, 『초등 우리교육』(우리교육, 2002)
- 신현득, 『한국동요문학의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단국대 대학원, 1982)
- 양우정, 『동요와 동시의 구별』, 『우정 양우정의 시문학』(보고사, 1999)
- 원종찬, 『아동문학과 비평정신』(창작과비평사, 2001)
- 유경환, 『한국현대동시론』(배영사, 1979)
- 유창근, 『현대아동문학론』(동문사, 1989)

- 윤석중, 『동심을 지킨 아동문학가들』, 『동서문학』(1988년 8월호)
- 윤석중, 『우리 나라 소년운동 발자취 -윤석중 전집 27』(웅진출판, 1988)
- 이상현, 『아동문학과 리얼리즘 문제』, 『한국문학』 1984. 5.
- 이오덕, 『아동문학과 서민성』, 『시정신과 유희정신』(창작과비평사, 1977)
- _____, 『아동시론』(세종출판사, 1973)
-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일지사, 1978)
- _____, 『아동문학의 이론』(형설출판사, 1983)
- _____, 『한국아동문학연구』(개문사, 1983)
- _____, 『세계아동문학대사전』(계몽사, 1989)
- 전은실, 『한국 동요의 발전사』, 동덕여자대 석사논문(동덕여대 대학원, 2000)
- 제해만, 『한국 현대 동요·동시의 사적 고찰 -광복 이후 60년대까지』, 『한국현대아동문학작가작품론』(집문당, 1997)
- 조형근, 『어린이기의 탄생과 근대적 가족 모델의 등장』, 『근대성의 경계를 찾아서』(새길, 1997)
- 차민기, 『박석정의 삶과 문학』, 『지역문학연구』 제7호(경남지역문학회, 2001)
- 한국아동문학연구소, 『아동문학 연구』(한국아동문학연구소, 1984)
- 한정동, 『동요에 있어서의 동심문제』, 『한국아동문학』 1집(한국아동문학회, 1972)
- L. H. 스미스, 박화목 옮김, 『아동문학론』(새문사, 1979)

<Abstract>

The Study on the Magazines for Children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and Kyungnam · Pusan Regional Children's Literature

Han, Jeong-Ho

The study on the Children's literature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1945-50) has still many areas to search and research. From that point of view, this article is to discover unknown magazines for children and to find out positively Children's literature at the time; based on that, the Children's literature in Kyungnam and Pusan is focused on.

Over thirty kinds of magazines for children were published during the time; as many as in other times. These magazines advocates for "the Children's literature movement". The movemnet resulted in two strands; one was reality-oriented, the other innocence.

『Saedongmu』(New Friends), 『Byulnara』(Starland), 『Adong Munhak』(Children's Literature), 『Adong Munhwa』(Children's Culture), 『Jindalae』(Azalea), and 『Adong Gurakbu』(Children's Club) belong to the first one. Writers for these magazines were the members of 'The head quaters for constructing Chosun literature' or 'The Union of Writers'. Although they didn't show their extremely leftist and agitative tone in the magazines, they strongly intended to orient children's heart to the reality.

The right wings during the time were not organized. They oriented innocence of children. 『Saessak』(Green sprouts), 『Sohakseang』(Grade schooles), 『Adong』(Children), and 『Eorini』(Children) belong to their

literature. These magazines held the nationalistic features, showing the educational aspects for building the new country which was the biggest task for the time.

Children's literature during the period was active in local areas. Especially Kyungnam and Pusan had played a great role since the colonial days. Thus, in this article these areas are focused on. And the well-known and new writers at the time and contributions by teachers and children were closely examined.

Joo-hong Lee who had led the local literature on behalf of leftist children's literature since the colonial days, Heung-seob Eom, Go-song Shin, Seok-jeong Park, Dae-woo Nam, and Won-su Lee took the lead. Through them a new tradition of the children's literature in this area was established.

After new writers published their works, the children's literature in this area radiated a different tint. Won-ryong Kim and Gye-rak Choi made a great effort to express their own voice. Contributions, especially by children, were made through out the whole region.

They continued the tradition which their forerunners made. The children's literature of the post-liberation period is another precious literary treasure to us. This article could be a stepping stone for the further study because it presents a general picture of the tradition of children's literature in the area and the children's magazines in the post-liberation period; roughly though.

This could increase the interest in the children's literature and expand the scope of the study on Korean children's literature.

Key Words : Children's literature, Children's magazine, orient children's heart to the reality, Regional Literature, post-liberation period, 『Saedongmu』, 『Sohakseang』